

대행 스님

나 자체가 바로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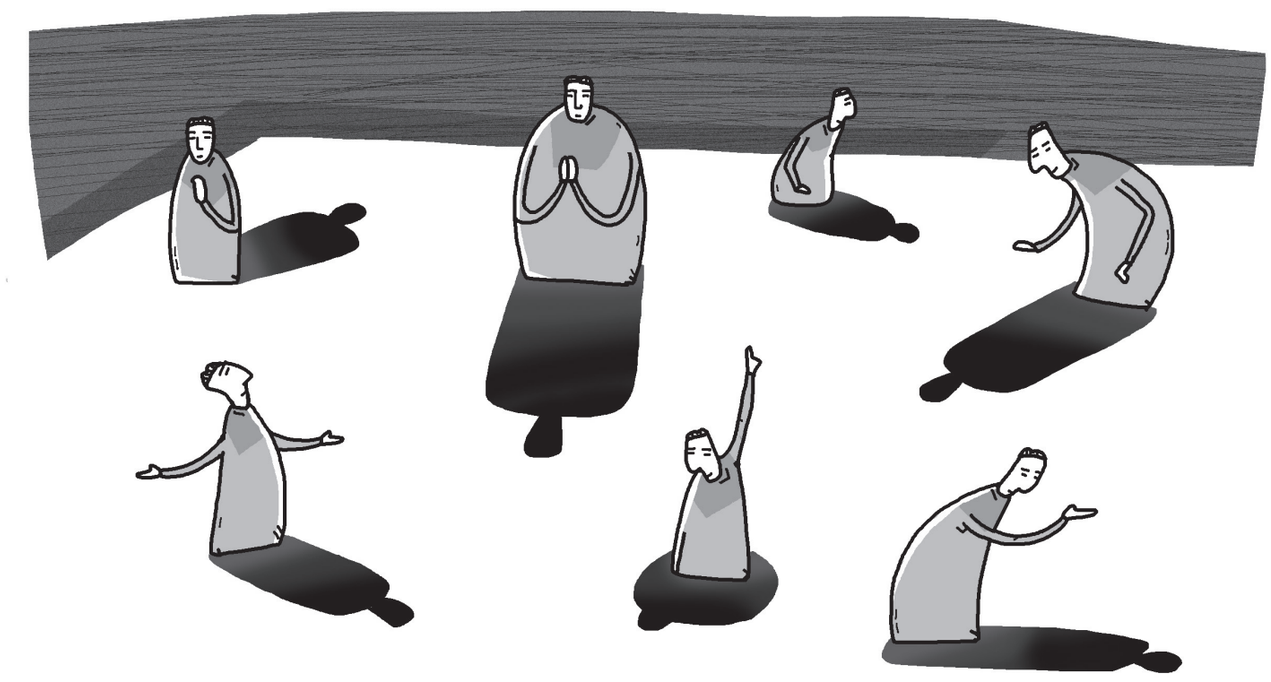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교라 하는 그 자체가 개별적으로 어디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면서도 모든 것이 한데 귀결돼서 한 주먹에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보이는 세상이 전부,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말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든 기독교든 알라신교든 힌두교든 어느 교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부자든 풀 한 포기든 모두 생명이 있고 또 근원이 있어서, 그게 불이니만큼 불교 안에 모든 종교가, 이름이 거기에 포함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종교 저 종교 따지면서, 내 집 네 집을 따지면서, 내 생명 네 생명을 따지면서 이렇게 가야만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49년을 설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때 그 뜻을 바로 일러 주시고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한 걸음도 걸은 예가 없고, 한 말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 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잘 생각을 해서, 나 하나만이 독불장군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 일체 생명이 다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우주의, 아니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 가설이 돼 있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너 나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둘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고, 수억겁 동안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고 진화되고 화하고 나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런데 사람 개개인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져 있는가? 직결돼 있고 가설돼 있는 이 몸에 말입니다. 나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것도 무효입니다. 어제, 내일, 오늘도 없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대가 생기고 인연이 생기고 인과가 생기고 윤회가 생기고, 유전성이니 업보성이니 그 모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발견할 것인가. 나에게는 나를 이끌어 가는, 바로 수억겁 전부터 끌고 왔으며 지금까지도 진화시켜 가면서 화해서 돌아가게 하는 나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딴 데다가 상대를 두고서 부처님을 찾는다거나 상대를 두고서 갖은 이름을 다 찾으면서 기도를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은 한 치도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서로 둘이 아니게 꿰뚫어 보려면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 됩니다. 내 집부터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를, 이끌어 가는 나를 똑바로 보라 이겁니다. 나 자체가 바로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일체제불을 다 한데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다 집어넣는대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 꺼낸다 하더라도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과 내 육체, 이 자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내가 끌려다니고 있나 하는 거를 지켜보는 그 자체가 참선인 것입니다. 좌선을 한다, 입선을 한다, 행선을 한다, 와선을 한다 하는 것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나 자신 주인에 맡겨 놓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도 그러하지마는 이 세상의 마음들을 모두 내놓으라 해도 하나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없는 것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데 문을 찾아서 부처님 도리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천만 리 먼 것입니다. 천칠백 공안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천당 지옥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부처님 법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들이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겠다고 한 유마힐 거사의 그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속에 있는 수십억의 생명과 의식과 모습이 바로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됐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솔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현재에 사는 것을 지켜본다면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몸뚱이 속의 업식이, 악업 선업이 뭉쳐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오신통이 오신통이 아니니라. 네 몸속의 중생들부터 제도하고 네 몸속에서 벗어나야 네 몸뚱이를 굴릴 수 있으며 이 세상 통을 굴릴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그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끓어서 술술 나오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했다는 말은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팥죽 솥이라면 수없이 일어나는 그 번뇌 업식이 바로 그 솥에서 나오는 죽 방울이 아니겠습니까. 제 솥에서 제 죽 방울이 일어나는 것이지 딴 솥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했다 하면 법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니 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업식들이 수없이, 좋게도 나오고 언짢게도 나오고 병고도 나오고 애고도 나오고 화도 일으키고,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자동 컴퓨터죠. 숙명통이란 자동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모두 오신통은 가지고 있으나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신통 속에서 벗어나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줄 수 있고 자기도 목마르면 물 한 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누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저 스님은 잘하고 저 스님은 못하고, 또는 저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 망했고…, 그러면서 시비를 합니다. 한 가정에 살면서도 "저놈 저렇게 하다가는 깡통이나 차지." 하고 자식 욕을 하거나, 부부지간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며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지 여러분의 법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이 어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심통이다, 천이통이다, 신족통이다, 천안통이다, 숙명통이다 하는 것도 모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고 통신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들이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에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선이 있고 오심이 있어서 만법의 기준을 한데 합쳐서 오르고 내리는 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고기들도 물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허무하게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내 몸뚱이도 지수화풍이라, 그래서 허망하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허망치 않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모두가 귀중하게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대로 참다운 부처님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 깨쳤다 하더라도 바

☞ 22면으로 계속

